



실적에는 관심이 없(었)다

1.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다

- 코로나 19가 확산된 2월 이후 1분기 전망치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
- 부진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2분기 전망치 하향 조정
-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하반기 전망치 하향 조정
- 하향 조정 지속되며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낮아짐
- 9월 이후 하향 조정 속도 둔화. 10월에는 IT를 중심으로 상향 조정 전환

2. 3Q 실적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다

-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어닝서프라이즈
- 사상 최대 분기 매출(66조원), 6번째로 높은 영업이익(12.3조원)
- LG전자, LG화학, 한샘 등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 다만, 3Q는 전망치 달성률이 높지 않은 분기라는 점은 경계가 필요

3. 느리게나마 변화 중인 수급의 흐름도 관심을 뒤야할 부분

- 10월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11.0조원으로 감소
-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64.8%) 감소와 순매도 전환(-0.8조) 또한 눈에 띄
-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규모 IPO를 거치며 고객예탁금 증가
- 빅히트 이후 대규모 IPO가 없다는 점에서 예탁금 감소 가능성에 무게

1.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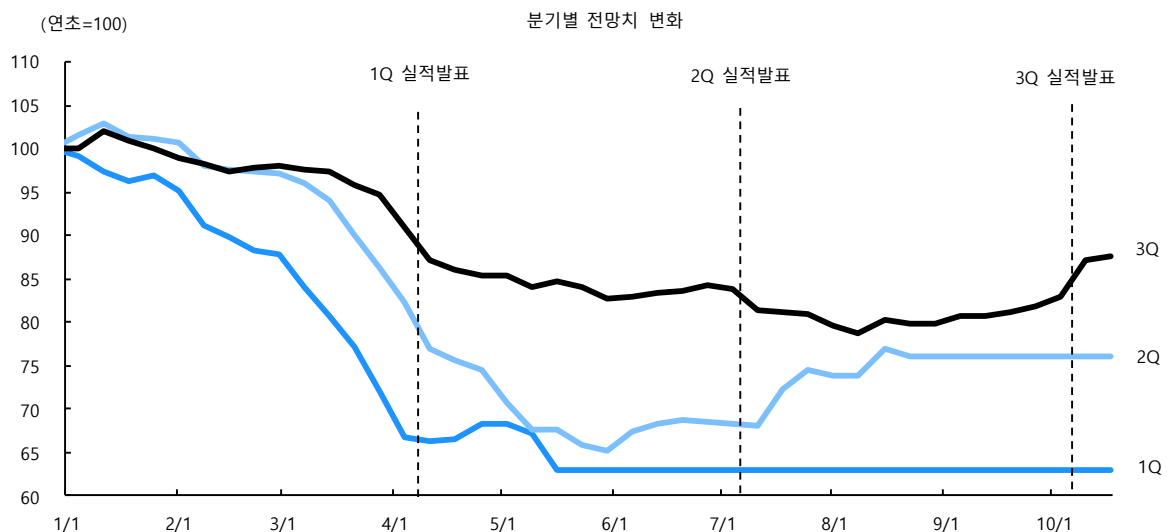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된 2월 이후 1분기 전망치는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1분기 실적치는 3월말 전망치 보다도 낮았다.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2분기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 조정됐다.

2분기 실적은 6월말 전망치를 상회했다.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된 덕분이었다. 하지만, 3월말 전망치와 비교하면 2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7개분기 연속 YoY 증감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증감률 지표도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2분기 실적발표를 전후로 3~4분기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진행됐다.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이 덜 이뤄졌다는 점, 목표주가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가 바뀌며 하반기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점 등이 하향 조정의 이유였다. 그리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9월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멈췄고, 오히려 최근에는 IT를 중심으로 전망치가 상향조정 되고 있다. 반도체, 가전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어닝서프라이즈가 반영되며, 상향 조정 폭이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이다.

[차트1] 2분기 전망치는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됐고, 실적치는 3월말 전망치를 하회
3분기 전망치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소폭 하향 조정에 그쳤고, 최근에는 상향조정 되는 모습



주: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3Q 실적시즌의 출발은 나쁘지 않다

지난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Q 잠정실적은 어닝서프라이즈였다. 매출액은 사상 최대 수준이었고, 12.3조원의 영업이익은 6번째로 높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개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증감률이 (+)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1~2분기 증시 전체 영업이익증감률이 (-)권에 머문 것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LG화학과 한샘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LG화학은 물적분할 결정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흐름이 주목되는 종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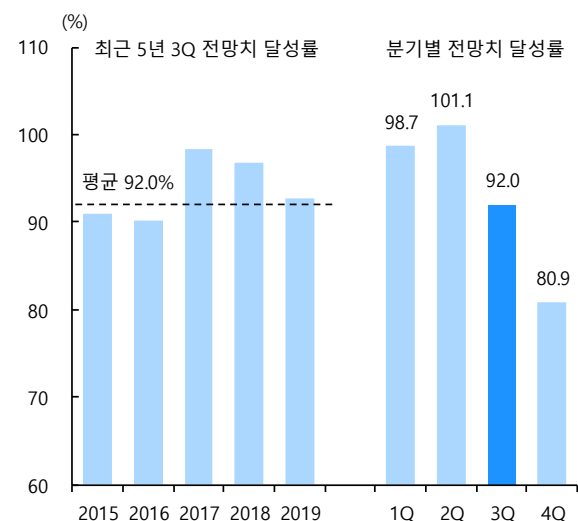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지난 1분기의 경우 삼성전자가 코로나 19의 확산 속에서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등 선전했지만, 증시 전체 전망치 달성률은 87.4%에 그쳤고, 2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전망치 달성률(124%)이 증시 전체 달성률(111.5%) 보다 높았다. 최근 3년 동안의 3분기 전망치 달성률이 각각 92.8%(19년), 96.8%(18년), 98.4%(17년)로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차트3]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전망치 달성률은 상반기에 높지 않았다

1Q	분기말전망치	실제치	달성률
삼성전자	61,310	64,473	105.2%
하이닉스	4,480	8,003	178.6%
증시전체	268,780	234,832	87.4%
삼전+하닉	65,789	72,476	110.2%
2종목 제외	202,990	162,356	80.0%
2Q	분기말전망치	실제치	달성률
삼성전자	65,718	81,463	124.0%
하이닉스	17,805	19,467	109.3%
증시전체	260,325	290,238	111.5%
삼전+하닉	83,522	100,930	120.8%
2종목 제외	176,803	189,308	107.1%

자료: 한국갤럽,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최근 5년 평균 3분기 전망치 달성률은 92.0%
전망치 달성 여부에 주목



자료: 한국갤럽,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느리게나마 변화 중인 수급의 흐름도 관심을 뒤야할 부분

10월 들어 8거래일 동안 KOSPI 거래대금은 일평균 11.0조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8월 (16.2조), 9월 (14.2조)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8월 1%를 상회했던 시총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10월 들어 0.68%로 하락했다. 2월(0.52%) 이후 최저치다.

7월~9월 3개월 연속 70%를 넘어섰던 개인의 거래비중은 64.8%로 낮아졌다. 개인투자자는 7월 2.2조원, 8월 6.2조원, 9월 5.0조원을 순매수했지만, 10월 들어 -0.8조원의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아직 11거래일이 남아 있긴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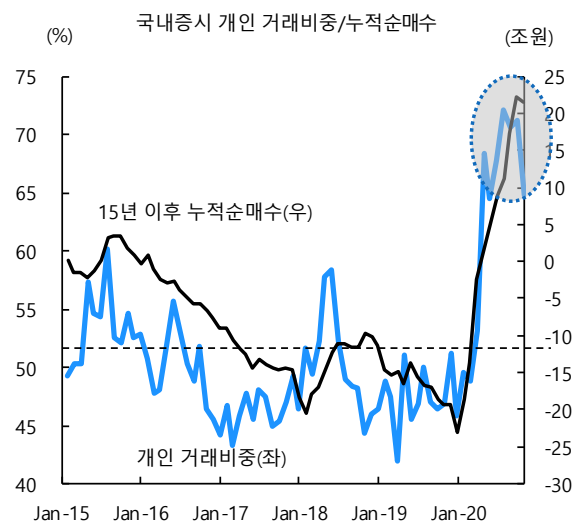
빅히트를 마지막으로 올해 예정된 대형 IPO는 없다. 대형 IPO의 공모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고객예탁금의 형태로 증시에 남아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는데, 이들 자금의 대부분이 단기 대출로 이뤄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예탁금의 감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SK바이오팜(30조), 카카오게임즈(58조), 빅히트(58조)를 거치며 청약/환불 규모가 커졌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졌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전일 상장한 빅히트의 경우 1억(2주 배정)을 청약했을 경우 상장 첫날 평가이익은 25만원이 채 안됐다.

[차트5] 10월 일평균 KOSPI 거래대금 11조원대로 감소
시총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2월 이후 최저치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10월 개인거래비중 64.8%로 감소
개인 순매수 강도 또한 약화된 상황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